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두고 반발 확산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녹색당 등 철회 요구 잇따라 “검증 없이 보행자 희생만 강요... 가로수 제거 중단을”

제주도가 추진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확대를 두고 시민단체와 정당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16개 단체·정당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지난 9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도는 예산안 편성도 안 된 중앙버스전용차로 사업을 위해 가로수를 제거하고 있다”며 “제주도의회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사업 예산 43억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행동은 “제주도는 향후 5년간 663억원을 들여 6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제주시 서광로의 가로수 등은 무참히 뽑히고 있다”며 “한국병원 맞은편 인도면 가로수는 뽑혔고 앞으로 130그루의 나무들이 추가로 뽑힐 예정으로 이는 총 사업비 328억원이 투입되는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공사의 일환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버스의 정시성 및 신속성 개선과 도민의 대중교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공사라고 밝혔지만 많은 논란을 일으킨 버스전용차로 1단계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추가 공사를 이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난 사업에서 인도를 줄이고 가로수를 뽑

아 버스전용차로를 조성했지만 제주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제주행동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자가용 승용차 교통량 감축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동 및 보행 환경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번 중앙버스전용차로제 2단계 사업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제주행동은 “제주도는 이 사업에

대한 2023년 예산으로 도비 43억 8000만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고 이제야 예산안이 제출돼 사업이 어떻게 될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가로수를 뽑아내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제주도의회는 효과 검증 없이 보행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제주는 가로수 제거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도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녹색당은 같은 날 논평을 발표해 “제주도정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내놓은 중앙버스전용차로(BRT) 2단계 공사가 오

히려 대중교통 이용을 저해하는 공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또 제주녹색당은 “도로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중앙버스차로를 확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 사업은 누구라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충분한 검증 없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진행되는 이번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공사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도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주 교통 환경에 적합한 중앙버스전용차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윤·김도영기자



유채꽃길 따라 10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의 농경지를 지나는 올레길에서 올레꾼들이 유채꽃을 배경으로 걸어가고 있다. 강혁만기자



지난 8일 정체를 몰라 흰색 물질이 떠밀려온 제주 김녕 해안 모습.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 해안에 정체 불명 하얀색 알갱이

해경 200kg 수거·분석 의뢰

제주 해안에 정체불명의 하얀색 작은 덩어리 형태 물질이 떠밀려와 해경과 지자체 등이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11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 12분쯤 제주시 구좌읍 김녕해수욕장 일대 해안에 하얀 알갱이가 드문드문 길게 퍼져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은 지자체와 함께 해당 물

질 200kg가량을 수거했으며 해양경찰연구센터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앞서 환경단체 세이브제주바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7일 김녕 해안에서 흰색 물질을 발견했다”며 “스티로폼 알갱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코코넛 오일이 온도가 떨어져서 굳은 것 같은 촉감이고, 이 물질을 만졌던 장갑과 밟았던 신발 밑창이 미끄러워졌다”고 밝혔었다. 이상민기자

부하 직원 강제추행 전 체육회 간부 벌금형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체육회 소속 간부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지난 9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도체육회 간부 A(6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추행 정도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인 지난 5월 29일 개최지인 대구시내 길거리에서 여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도체육회는 A씨가 기소되자 지난 8월1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그를 해임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독감 환자 4배 ↑... 코로나와 동시 유행 현실화

도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최고치 기록 1일 평균 400명 확진 코로나 확산세... 예방접종 당부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동시유행 본격화 조짐에 따라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예방접종 적극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올해 49주(11월 27일~12월 3일)

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외래환자 1000명 당 20명으로, 질병관리청이 9월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올해 45~49주 기간 동안 평균

10.7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49주에는 인플루엔자 유행기준(4.9명)의 4배를 기록하며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을 넘어섰다.

또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도 심해지고 있다.

지난 10일 하루동안 도내에서는 515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지역 발생한 확진자는 총 3413명이다. 이는

전주 대비 929명이 증가한 수치다. 일 평균 300명대에 머물던 확진자 수는 최근 400명대를 넘어서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11일 오후 5시 기준 도내에서는 328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 수는 35만3941명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강인철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는 보건용 마스크(KF80·KF94)를 착용하고 일 3회 10분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태윤기자 lty3456@ihalla.com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제주경찰, 50대 남성 입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영평동의 한 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약 5km를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으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따뜻한동행! 건강하고 행복한 치매안심 서귀포시

문의 및 상담 : 서귀포보건소 ☎ 760-6555~8

치매 조기검진

- 대상: 치매 진단받지 않은 주민 누구나
- 내용
 - 기억력 검사를 위한 선별검사
 - 인지저하자를 위한 진단검사
 - 치매 원인규명을 위한 감별검사

단계별 프로그램

- 누구나 치매예방교실
- 치매고위험군은(인지저하, 경도인지장애) 인지강화교실
- 경증 치매어르신은 쉼터 (인지자극프로그램)

치매지원서비스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환자 돌봄 호호물품 제공
- 배회가능 어르신 실종예방사업
- 공공후견인 지원
- 가족교실 및 자조모임
- 힐링프로그램

치매안심센터

- 치매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사업
- 치매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캠페인
- 치매파트너 및 파트너 플러스 양성 및 활동 활성화
-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관리
- 치매안심마을 운영
-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